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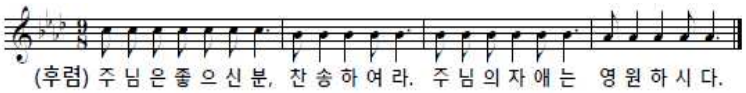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톳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2,42-47

화답송 | 시편 118(117),2-4.13-15ㄱㄴ.22-24(◎ 1)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제2독서 | 1베드 1,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5 예물준비 217(219)
영성체 170(171) 파견 136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 유금순
-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영혼을 위하여
- 이상옥 소화데레사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이경자 아녜스 건강과 가족을 위해
- 문아현 유스티나 세례 축하
- 문에릭 엘리지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양미숙 마리아 가족 건강을 위하여
- 유기호, 진문자 영육 건강
- Fr.김성인과 한인공동체

오늘의 말씀

"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요한 20,19)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4월 12일	정유진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백이백 이정현	조혜원 여동건
4월 19일	김유화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이영혜 이기원 진서윤	허우현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4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4.4 이시도로 4.11 젬마
4.14 리드비나 4.16 벨라뎃다
4.21 안셀모 4.25 마르코
4.28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4.29 카타리나

*** Br. Domingo Martinez(본당 협조 수사님)의 서원 갱신(renewal Vows)을 축하합니다. May God bless you and we all pray for you!**

*** 제41차 여성 꾸르실료(4/16–4/19, 주최: 미동북부 꾸르실료 사무국) 피정 참가자 한미영 안나, 민재인 데레사를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정명화(스테파노) 형제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어린이 첫영성체반 수업 시작

오늘부터 첫영성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과 하나되는 첫영성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초2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교리 일정: 4/12, 4/19, 5/10, 5/31(담당: Fr. 루카 OFM)
시간/장소: 11:30AM-12:30PM, 오피스동 3층 컨퍼런스룸
첫영성체: 6월 7일(주일) 성체성혈대축일 미사 중
신청: 917-514-0488 (학부모회 회장 김혜미 레오나)

성가정회 수제 티라미수 판매

일시: 4/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직후)
장소: 산 다미아노 홀
품목: 정성껏 준비한 수제 Tiramisu
가격: 한 개당 $8 (Cash/Venmo only, cash preferred)

제2차 54일 묵주기도 모임

2026년 '영성의 해'를 맞아 일상기도의 심화를 지향하며 '54일 묵주기도' 제 2차 모임을 시작합니다. 묵주기도 첫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합니다.
(*기도 기간 동안 2-3회 중간모임 있을 예정)
시작모임: 4/19(주일), 1:00AM(준비물: 묵주, 필기도구)
장소: 프란시스룸
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6년 주일학교 신앙캠프

주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일시/ 장소: 5월 2일~3일 (1박2일), Autocamp Catskill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들과 가족들
참가비: $50 per child, $100 per adult
접수마감: 3월 31일까지
문의: 858-345-0307 (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2026년 제82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일시: 2026년 5월 15일 오후 7시 - 17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646-322-3484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Cheolsoon@gmail.com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5/17(주일) 특강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유중철 요한(1779-1801)

유중철 요한은 1779년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부친 유항검의 영향으로 일찍이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성실하고 솔직한 신심, 굳은 신앙과 열렬한 애덕을 갖추어 나갔다. 1795년 16세에 주문모 신부가 초남이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첫 영성체를 하였는데, 이때 유 요한은 '평생 동정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주 신부와 부친 앞에서 털어놓았다. 비슷한 때에, 같은 뜻을 품은 이순이 루갈다를 알게 된 주 신부는 둘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1797년 두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동정 서약을 하며 평생 오누이처럼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부부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극복하며 함께 순교의 길을 걷기로 약속했다.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의 동생 유문석 요한이 음식은 가져다주곤 했지만, 의복만큼은 전할 수 없어 칼을 쓴 채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1801년 11월 14일, 22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는 죽기 전 아내에게 "나는 누이(곧 아내 루갈다)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마지막 쪽지를 남겨 끝까지 신앙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격려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7, 가해, 2026. 04. 12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OCT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생명의 말씀

주님의 자비, 상처와 상처가 맞닿는 자리

김원호 바오로 신부 | 등촌3동 주임신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주님을 뵙고 감격에 젖어 있을 때, 홀로 그 기쁨에서 소외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필 나만 없을 때 오셨을까?'하는 서운함과 오해는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라는 한맺힌 절규로 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신이라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20,27) 이 말씀은 토마스의 불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픔을 통해 그의 오해와 아픔을 치유하시려는 자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 앞에서 토마스는 비로소 모든 오해를 씻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20,28)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 안동교구 강구성당에서 사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 토마스 사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작은 시골 성당의 성전 문고리는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만지고 있는 토마스의 손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문고리를 밀어 성전 문을 열고 제대를 차리며 신자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상처 위에 저의 손을 포개어 문을 열던 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사랑하는 신자분들과의 만남은 주님의 자비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상처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투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 때,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가장 아픈 곳을 먼저 내보이듯,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광보다는 부서진 상처를 먼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알아주길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상처에 손을 포개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당신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투신'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 나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 앞에 내어놓고 서로의 상처가 맞닿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치유하고 치유받는 자비로운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자비이시며,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해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 팩트체크의 전문가인 토마스가 만약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를 보았다면, 왜 배꼽을 그렸냐고 물어왔겠지요? 탯줄 없이 창조된 아담에게 배꼽이라니.... 진실은 우리의 논쟁거리이지만, 진실의 너머에 자리잡은 진리는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줄 것을 믿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일지라도, 결국 섭리의 품안으로 모여드는 더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8호, 2026년 4월 12일(가해)